



## 머리글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 두려움의 대상, 아파하시는 마음,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

선교지 주민들에게 선교사들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자기들과는 다른 피부색을 가지고 다른 문명권에서 왔으며 때로는 군사력까지 뒤로 했으니 그럴 법도 합니다. 종종 총까지 쏘다고 합니다. 게다가 하느님과 하느님의 계명을 이야기하며 지켜야 한다고 하니, 선교사들의 말의 무게감 역시 상당했을 것입니다. “신부님 노여워하실라”가 거의 관용어처럼 신자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지역도 보았습니다. 우리 적인 에겐 하느님이 이보다 더 큰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하느님 마음을 온전히 담아내고 있는 예수 성심은 전통적으로 아파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가슴을 열고 당신의 심장을 보여주십니다. 그 심장은 가시관에 박혀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탈선을 노여워하시기보다, 안타까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면서 오히려 당신이 상처받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한국 일만위 순교자 현양 동산, 예수성심상〉

지난달 후원회원들과 강화도에 다녀왔습니다. 오후에 들른 ‘한국 일만 위 순교자 현양 동산’은 한국의 일만 명 순교자를 기리고자 만든 곳입니다. 이곳에 우뚝 서 있는 위로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안내판에는 예수성심상은 늘 가시관에 피가 흐르는 심장을 보여주고 아파하는 모습이라 예수님께 다가가기 어렵고 미안했다며, 두 팔을 벌려 환영하는 예수님 모습을 보고 싶어서 작가에게 부탁해서 만들었다고 적혀있었습니다.

6월 예수 성심성월입니다. 우리의 넘어짐을 보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하느님의 아들이기에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의 잘못을 보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괜찮아’하고 꼭 안아주시는 그런 위로의 주님께 마음이 더 끌립니다. 더 끌리는 만큼 저 역시 그런 미소를 지으며 두 팔 벌려 ‘감옥에 갇힌 이들, 출소한 형제들, 범죄피해자분들, 봉사자분들, 후원회원분들을 품어주며 손잡아드려야지’ 다짐해봅니다. 형제자매님들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품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각 교정시설 세례식



4월 19일(금) 서울남부교도소 훈련원 1명과 23일(화) 서울구치소 여사 1명의 세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통신교리를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미사에 함께한 모든 분이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남을 축하해주었습니다. 하느님의 대가 없는

사랑을 느끼고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사회사목국 서품 2년차 사제 연수



5월 8일(수) 서품 2년 차 사제 연수가 베네딕도 수도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사회사목국의 14개 위원회가 한자리에 모여 부스를 마련하여 소개하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총 31명의 사제 중에서 23명의 사제가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부스에 방문하여, 활동사진과 영상을 보며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수용자, 출소자, 피해자, 봉사자와 후원회원들에 대하여 새로운 이야기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하여 2년 차 사제들이 교정사목을 이해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후원회원을 위한 야외미사



5월 13일(월) 강화도 갑곶 순교성지에서 후원회원을 위한 야외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갑곶순교성지는 천주교인 우윤집, 최순복, 박상손이 갑곶돈대에서 효수되었다는 문헌에 따라 인천교구에서 2000년에 순교성지로 조성한 곳입니다. 미사가 끝나고 점심을 드신 후에 간단한 빙고 게임이 있었습니다. 여럿이 함께 가벼운 마음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었다며 즐거워하셨습니다. 갑곶 순교성지에 이어, '한국 일만 위 순교자 현양 동산'으로 순례지를 이동하였습니다. 한국의 일만 명 순교자들의 넋을 기리고자 현양 동산을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침묵 중에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한 순교자들의 굳건한 믿음을 되새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 우리의 손을 꼭 잡고 계신 주님

태현희 크리스티나\_ 서울구치소 여사 봉사자

찬미 예수님!

교정시설 자원봉사자 교육을 받은 지 어느덧 1년이 흘렀습니다.

2018년 2월 아직은 쌀쌀했던 기억 속에 서울구치소로 향했던 그때가 아련히 떠오릅니다.

무지 속에 향했던 것이 벌써 1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유튜브에서 우연히 보았던 한 신부님의 교정사목 관련 강론에 끌려 봉사를 시작하여, 이제는 꽤 익숙한 발걸음으로 화요일을 맞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늘 눈물 나게 감사한 하느님의 은총에 저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보내는 짧은 시간에 저는 매주 치유되며 행복의 조각들로 차곡차곡 쌓아갑니다.

봉사한다는 그것보다는 제가 넘치도록 사랑을 받는 시간입니다.

제 삶에 성실할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 고정된 행복의 중심에 저를 세워 주시는 주님. 제가 배려를 알게 되었습니다.

찬양으로 그들과 하나가 되어 우리는 희망을 그리고, 눈물 닦아주며 흔들리는 어깨를 토닥거리며 혼자가 아님을 느낍니다.

봉사는 거창할 것이라며 감히 그 문의 입구에도 설 수 없었던 제가 용기 내 시작하였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곳의 자매님들을 위한 기도는 이제는 습관처럼 일상의 한 부분입니다.

제 삶에 많은 변화를 준 이곳과의 인연에 감사합니다.

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곳의 자매들과 언제나 함께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잡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소서.



## 에사우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_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살갓이 붉고 온몸이 털투성이”(창세 25,25)여서 에사우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성경은 기술하였지만, ‘붉다’는 뜻과 ‘에사우’와 직접적 관련은 없어 보입니다. 그보다 에사우의 다른 이름인 ‘에돔’(창세기 25, 30)이 ‘붉다, 빨갛다’는 히브리 어원에서 파생하였습니다. 에사우는 ‘털이 많다’는 의미의 히브리어 ‘에사브’, 짐승의 털가죽 옷을 의미하는 ‘세이르’(이는 에사우가 머무르는 지역의 명칭이 되기도 했습니다. 창세 32,4 참조)와 연관이 되어 보입니다.

에사우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무엇보다도 배고픔 때문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일화가 떠오릅니다.

하루는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었다. 그때 에사우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왔다. 에사우가 야곱에게 “허기지구나, 저 붉은 것, 그 붉은 것 좀 먹게 해다오.”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이름을 에돔이라 하였다. 그러나 야곱은 “먼저 형의 맏아들 권리를 내게 파시오.”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에사우가 대답하였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맏아들 권리가 내게 무슨 소용이겠느냐?” 그래서 야곱이 “먼저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하자, 에사우는 맹세를 하고 자기의 맏아들 권리를 야곱에게 팔아넘겼다. 그러자 야곱이 빵과 불콩죽을 에사우에게 주었다. 그는 먹고 마시고서는 일어나 나갔다. 이렇게 에사우는 맏아들 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창세 25,29-34)

당장의 배고픔 때문에 보이지 않는 “맏아들의 권리”, 아버지의 뒤를 이어 집안의 대소사를 처리하는 통솔권이자, 재산을 잇고 후계자를 축복하는 권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것이 그의 큰 잘못이자 실수인 듯 보입니다. 먹고 살길에 급급하여 영적인 가치를 소홀히 한 것, 그저 당장 좋은 결과와 일확천금에 눈이 어두워 과정과 방법의 올바름을 무시한 것, 그런 것이 우리 안의 에사우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장자권 양도 계약은 얼렁뚱땅 이루어집니다. 증인도 계약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맹세로 이루어집니다. 그저 어릴 적 “내기할래?”에 응한 치기 어린 행동, 그냥 불콩죽을 둘러싼 해프닝으

로 끝나는가 했는데 아버지 이사악의 축복을 야곱이 속임수로 가로채면서 확정이 됩니다. “아버지, 아버지께는 축복이 하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까? 아버지, 저에게, 저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창세 27,38)라는 울부짖음에 어리석어 보이던 에사우가 불쌍하고도 안쓰러워 보이게 하지 합니다.

그런데, 정말 에사우는 하느님의 축복 없이 살아갔을까요? 아브라함에게도 보이듯 구약에서 생각하는 하느님의 축복은 땅과 자손입니다. 에사우는 에돔 지방 세이르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창세 32,4). 이 지역은 사해 남쪽 지역, 현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남쪽입니다. 험한 산악 지역이어서 농업과 목축업에는 부적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대에는 이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잇는 무역로(King's way)와 구리광산으로 인하여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다 땅에는 없는 항구(1열왕 9,26; 2역대 8,17)를 가지고 있어서 번성할 수 있었고 매력적인 땅이었습니다. 후대에 이르러서만 번성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나그네 생활을 한 후 돌아올 때 에사우는 장정 사백 명을 거느리고 만나러 올 정도로 큰 세력을 이미 떨치고 있었습니다. 땅만이 아니라 자손도 받았습니다. 세 명의 아내에게 아들들을 볼 수 있었고 성서는 이들에게서 난 자손을 나열(창세 36,1~30)하고 심지어 이스라엘에 임금이 있기 전에 왕정이 시작되었다고 하면서 임금의 이름 역시 나열(창세 36,31~39)하고 있습니다.

이사악이 에사우에게 한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습니다.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면서 네 아우를 섬기리라. 그러나 네가 뿌리칠 때, 네 목에서 그의 멍에를 떨쳐 버릴 수 있으리라.”(창세 27,40) 에사우는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그때, 만아들의 권리를 팔아버리는 게 아닌데.’ ‘이 나쁜 놈, 감히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라고 투덜거리고 욕하고 저주하면서 주저앉아 신세 한탄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축복을 자신이 차분히 걸어나가며 성취하였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목에 있는 동생의 멍에를 떨쳐 버렸습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나갔습니다. 동생이 ‘그의 발꿈치를 붙잡았을지라도’(창세 25,26) 그는 앞으로 걸어나간 것입니다. 자신이 자신의 운명을 개척했기에 기꺼이 동생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에사우가 야곱에게 달려와서 그를 껴안았다. 에사우는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창세 33,4) ‘그때 내가 더 신중했더라면,’ ‘그때 그 사람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 사기꾼이 나를 속이지 않았더라면.’ 계속 과거의 내 잘못만 돌아보고 한숨만 내뿜고 있지는 않은지, 남 탓만 하면서 화내고 욕하고 있지는 않은지, 있지도 않은 팔자타령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 멍에, 그 올라미를 분명 뿌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뿌리치려고만 한다면 말이죠.



## 기쁨과희망은행 2019년 상반기(21기) 창업교육

꿈과 희망을 품고 새로운 삶을 설계해 나가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2019년 상반기(21기) 창업교육이 시행됩니다. 창업하고자 하는 분야의 사업기반을 마련하고, 안정된 사회정착과 인격 향상을 위한 교육이 함께 진행됩니다.

### 1) 창업교육 개요

가) 지원대상 : 출소한 지 3년 이내인 자로서 서울·경기·인천 지역 창업 예정자

나) 서류접수 : 2019년 5월 27일(월) ~ 6월 14일(금)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라) 교육장소 :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 20길 27 빛의 사람들 2층 강의실

마) 서류심사발표 : 2019년 6월 19일(수)

#### 바) 창업교육

- 기초교육 : 2019년 6월 24(월) ~ 28일(금)

- 교육시간 : 10:00 ~ 17:30

- 교육수료 : 2019년 6월 28일(금)

사) 현장실사 : 2019년 7월 1일(월) ~ 11일(목)

아) 면접심사 : 2019년 7월 13일(토)

#### 자) 멘토링 교육

- 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창업 업종별 분류

- 심사 후 멘토선정

#### 차) 최종심사

- 창업 전반에 관하여 전문가 멘토링 교육 후 멘토 추천으로 최종심사

### 2) 구비서류

가) 지원신청서 (기쁨과희망은행 양식)

나) 출소 증명서

다) 주민등록등본·초본

라) 가족관계증명서

마) 추천서(신부님 또는 출소구치소, 교도소, 법무보호복지공단 추천)

바) 기타필요서류

기쁨과희망은행은 출소한 지 3년 이내의 출소자 및 피해자 가족의 자립을 위한 무담보대출은행으로 창업교육과 대출 및 자본금 지원을 통해 꿈과 희망을 품고 새로운 삶을 설계해 나가는 데 도움을 주고 재범을 방지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며, 또한,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상처를 함께 나누고 그리스도교 복음 정신으로 참 인간화와 사회 복음화를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위원회 분들의 큰 도움을 받은 양OO입니다.

덕분에 2개월에 걸쳐 제게 문제가 심했던 부분들을 말끔히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잘못된 길로 들어왔는데, 저에게 큰 도움을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큰 도움을 주시고 격려까지 해주셨던 현대일 신부님처럼 멋진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이곳에 들어오게 된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깊게 반성하며 자숙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비록 저는 도움만 받고 아무것도 해드릴 수는 없지만, 나중이라도 꼭 기회가 된다면 직접 찾아 보어 감사 인사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곧 짝값을 치르러 교도소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잘 지내고 사회로 복귀해서 위원회 분들과 신부님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졌습니다.

아무 힘도 능력도 없지만,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는 마음을 꼭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그동안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매일 매일 행복한 나날들이 이어지도록 바라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9. 5. 9

양OO 드림

서울구치소에서 생활하는 형제가 현대일 루도비코 위원장 신부에게 감사편지를 보내주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계좌주 본인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이용한 출금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① 수집 및 이용목적: 자동이체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② 수집항목: (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 주소, 계좌정보/(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③ 보유 및 이용기간: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자동이체 이용종료 또는 해지 후 5년

④ 신청고객은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자동이체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신청 절차에 의해 반드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여야 자동이체 신청가능  
수집을 원치 않으실 경우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후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 동의함

☐ 동의안함

고유식별정보

☐ 동의함

☐ 동의안함

본인은 자동이체거래약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자동이체를 신청한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금융거래정보(거래금융기관명, 영업점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를 상기 거래금융 기관에 제공하는 것과 위 정보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약관과 '금융실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의하며 위와 같이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 2019년 7월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는 매월 첫째 주 월요일 후원회원과 회원 가족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후원회원, 봉사자 외에도 사회로부터 소외된 수용자의 가족과 출소자, 그리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해밀 가족분과 함께 기도 하고 싶은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 일시 : 7월 1일 월요일 오전 10:30 \* 장소 :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7월 축일을 맞으신 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오니 축일자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새로운 교정사목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4/12~5/12)

4월 ~ 5월에는 정기진 대건안드레아, 채정순님께서 새로운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후원하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행사 알림

- 6월 3일(월)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 / 가톨릭회관 3층
- 6월 8일(토)~9일(일) 한국 가톨릭 교정사목 전국협의회 성심회(천주교 신자 교도관) 총회 / 천안상록리조트
- 6월 13일(목) 해밀 가족 모임 / 교정사목 센터
- 6월 16일(일) 기쁨과희망은행 운영위원 야유회 / 서울 홍제동 안산 고봉중고등학교,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봉사자 세미나 / 돈보스코청소년센터
- 6월 24일(월)~28일(금) 기쁨과희망은행 제21기 창업교육
- 6월 24일(월)~7월 1일(월) 대신학교 신학과 4학년 사회사목국 현장 실습



### 후원 계좌번호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 후원신청서

후원자 성명	세례명	영명축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	
소식지발송	<input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이메일 <input type="checkbox"/> 원치않음	
후원금액	<input type="checkbox"/> 5,000원 <input type="checkbox"/> 10,000원 <input type="checkbox"/> 20,000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                      )원	
금융기관명	이체일	<input type="checkbox"/> 5일 <input type="checkbox"/> 15일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형식의 평생계좌는 [모계좌번호]를 적어주세요.	
예금주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기부금영수증 원하시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기입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